

르포/ 화순군수 재선거 첫 주말 유세전

“10년 재선거 악순환 내가 끊겠다”

치열한 2과전속 흠집내기 비방전 가열 민노·진보당 “대안세력에 기회” 호소

“이번에는 진짜로 잘 뽑아야겠다. 그런데 정책은 없고 서로 비방만 하고 있으니, 정말 답답하구먼.” “언제쯤 제대로 된 선거를 한번 해보려는지.”

휴일인 14일 오후 화순읍 근내 버스터미널에 만난 지역 유권자들의 입에서는 탄식만이 쏟아져 나왔다. 화순군수 재선거에 대한 선거운동이 본격 시작된 가운데 치열한 2과전이 예상되는 민주당 홍이식 후보와 무소속 임호경 후보의 상호 비방이 가열되고 있기 때문이다.

화순군민들 사이에서는 이번 재선거를 실추된 군의 명예를 회복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일부 후보들은 정책은 뒷전인 채 상대후보 흠집 내기에 열을 올리고 있어 유권자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

민주당 홍이식 후보는 17일 오후 화순읍 만연리 국민은행 교차로에서 민주당 이낙연 사무총장과 함께 거리 유세를 벌이며 “화순의 새역사를 창조하자”고 호소했다.

지난 14일 민주당 국회의원과 당직자 등이 대거 참석한 가운데 출정식을 열고 세뭉치에 나선 홍 후보는 주말인 16~17일 화순읍, 5일 장 등을 돌며 집중 유세를 벌이며 표밭을 일궈나갈 계획이다.

홍 후보는 “민주당의 엄격하고 민주적인 경선을 통과한 공인된 후보로 반복과 분열의 불행한 화순 정치사에 발끝도 담그지 않은 무결점 후보”라며 “분열된 화순을 묶는 화합과 소통의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최근 무소속 임호경 후보가 내세운 “3년 단임제” 공약을 겨냥해 “얼마나 급했으면 3년만 하겠다고 약속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라며 임 후보를 공격했다.

임 후보도 주말과 휴일 이틀간 화순읍과 동북 정터 등에서 거리유세를 벌이고 ‘부부군수’로서 자신이 쌓은 공적을 강조했다. 임 후보는 낮에는 단위와 장터를 돌고, 오후에는 화순읍 아파트단지 유권자를 중심으로 “단 한 번의 기회를 달라”며 말바다

표심을 훑고 있다.

그는 “첫 번째 재선거를 치르게 한 당사자로서 군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린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며 “화순을 살맛나는 고장으로 만든 뒤 3년 뒤에는 성공한 군수로 군민들에게 반드시 돌아갈 것”이라며 ‘단임제’를 강조했다.

“단임제” 공방에 앞서 임 후보 측은 지난주 홍 후보를 상대로 ‘신용불량자’ 후보라며 비난을 했고, 홍 후보는 이를 해명하는 등 둘 사이에 한 차례 ‘신불자’ 공방이 벌어졌었다.

홍 후보와 임 후보의 2과전 전망 속에 진보정당의 후보로 나선 민주노동당 백남수 후보, 진보 신당 최만원 후보도 대안세력으로서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백 후보도 이날 화순읍 광덕지구에서 유세를 갖고 “10여 년간 화순의 자존심을 훼손한 낡은 세력을 몰아낼 절호의 기회가 왔다”라며 “재선거 없는 화순을 만들어 화순의 자존심을 회복하고 편 가르기로 지친 군정을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최 후보도 “이번 선거는 금권개입, 공(空)와 남발, 비방이 없는 3무 선거가 돼야 한다”며 “더 좋은 정책으로 화순을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 수 있을지 군민에게 심판받자”고 말했다.

민주당의 조직력과 전형준·전완준 등 전직 형제군수 측의 지원까지 등에 업고 있는 홍 후보와 지역에 폭넓게 퍼져 있는 지지기반과 탄탄한 조직력을 앞세운 임 후보가 한치의 양보도 없는 치열한 접전을 벌이면서 두 후보의 상호비방전이 더욱 가열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주민 김진수(64·화순읍)씨는 “대부분의 주민이 이번 재선거를 통해 10년 동안 이어진 부부군수, 형제군수라는 불명예와 함께 3차례 재·보궐 선거를 치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실추된 지역의 이미지를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며 “하지만, 2명의 유력후보가 서로 비방 강도를 높이고 있어 또다시 선거법 ‘악령’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4·27 화순군수 재선거에 나선 각 후보들이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첫 주말과 휴일인 16일과 17일 화순읍 등에서 총력 유세 등 선거전을 펼치며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 위부터 민주당 홍이식 후보, 민노당 백남수 후보, 진보신당 최만원 후보, 무소속 임호경 후보.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17일 오후 순천 연향동에서 열린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의 총력 유세에 민주당, 민노당, 진보신당, 국민참여당 등 야 4당 대표 및 최고위원과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참석해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민주 지원유세...순천 보선 판세 급변

정동영 최고 참석 野 단일화 바람몰이...무소속 후보들 반발

민주당을 포함한 야 4당 대표 및 최고위원과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17일 아권연대 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에 대한 대규모 지원 유세를 나서면서 10일 앞으로 다가온 순천 국회의원 보궐선거 판세에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무공천’ 이후 순천 아권 단일후보 지원에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던 민주당에서 정동영 최고위원이 순천 공동 유세에 참석해 단일화 바람몰이에 나서면서 아권연대 분위기가 급상승하고 있는 분위기다. 17일 민주노동당에 따르면 아권연대 단일 후보인 김선동 후보는 휴일인 이날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순천 연향동 동부상설시장, 국민은행 4거리, 조례동 호수공원 입구 등 순천시내 곳곳에서 총력 유세를 펼쳤다.

이날 총력 유세에는 민주당 정동영 최고위원과 민노당 이정희

대표, 진보 신당 조승수 대표, 국민참여당 유시민 대표를 비롯한 야 4당 대표와 진보 대통합시민회의 이희영 상임대표, 민주통합시민행동 이형남 공동대표, 백만민단 문성근 대표 등 각계 시민사회단체 대표들이 총 출동해 김 후보의 지지를 호소했다. 이날 야당-시민사회단체 공동유세에는 시민 등 2000여 명이 참석했다.

민주당의 텃밭인 순천에서 민주당 출신 무소속 후보들과 친분과 지역 정서 등을 감안, 그동안 지도부와 호반 의원들이 아권 단일후보인 민주노동당 김선동 후보 지원에 선뜻 발벗고 나서지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다.

실제 무소속 후보 중 한 명인 조순운 전 청와대 정무수석과 절친한 사이인 박지원 원내대표도 순천 유세 참석 여부를 놓고 막판까지 고민하다 결국 발길을 강원으로 돌렸다는 후문이다.

하지만, 이날 정 최고위원이 공동유세에 참석하면서 민주당이 뒤늦게 아권연대 후보에 힘을 실어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지역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다. 반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후보들은 이에 반발하고 나섰다.

무소속 허삼만 후보는 이날 논평을 통해 “민노당이 민주당을 어렵고 협박해 민주당 일부 최고위원이 마치못해 민노당 순천 보궐선거 유세장에 얼굴을 내밀었다”라며 “참으로 유감스러운 사태가 아닐 수 없다”고 말했다.

무소속 조순운 후보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무공천 결정은 순천시민 선택권에 혼란을 준 잘못된 결정”이라며 “이번 보궐선거야말로 정당에 얽매이지 않고 인물이 주목될 절호의 기회라는 점에서 사실상 시민이 공천권을 행사하는 날”이라고 주장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분당을 초박빙, 김해을 野·강원지사 與 우세

‘빅3’ 초반 판세

4·27 재보선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지만 강원지사, 분당을, 김해을 보궐선거의 판세가 여전히 안개 속이다. 강원도의 경우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인지도와 여당 프리미엄을 앞세워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김해을은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아권 단일화 효과를 앞세워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를 각각 앞서고 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아 서로 승부를 장담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분당은 초박빙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어 승부를 예측할 수 있는 지역이 한 것도 없는 상황이다.

◇분당을=전통적인 한나라당 텃밭임에도 초박빙 경합이 이어지고 있다. 모든 여론조사가 오차 범위 내에 승패가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한나라당은 보수층의 결집을 위해, 민주당은 20~40대 유권자의 투표율을 올리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강원지사=이날 현재까지도 각종 여론조사 결과, 한나라당 엄기영 후보가 민주당 최문순 후보를 앞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그러나 이광재 전 지사에 대한 동정론 등이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나라당은 엄 후보의 인지도와 당 차원의 총력 지원체제에

힘입어 판세가 점점 굳어지고 있다는 판단하는 반면, 민주당은 지지율 격차가 한자릿수대로 좁혀지는 등 추격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김해을=아권 단일후보로 나선 국민참여당 이봉수 후보가 한나라당 김태호 후보에 비해 일단 우위를 점했다는 게 여야의 공통된 분석이다.

아권은 바닥에서 단일화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주장하면서 선대위 상임고문인 문재인 변호사 등 친노 인사를 대거 투입, 단일화 바람몰이를 통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고향인 이곳을 수성한다는 계획이다. /박지경기자 jpkp@kwangju.co.kr

창사 50주년
광주일보 1962-2011

하이패스 이용률 50% 넘어섰습니다

환경/사랑

시간의 소중함을 알고
환경 사랑을 생각하며
절약 생활에 앞서는
하이패스 고객님
고맙습니다

녹색 더 하기 hi-pass 한국도로공사